

## 경장

경장(經藏)은 경전을 수장하는 건물인데, 일반적인 서고와는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768 점의 경전을 수납하기 위한, 회전하는 팔각형 서가가 있으며, 그 8 면에는 각각 96 개의 서랍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자연계의 법칙인 '법륜(法輪)의 회전'이라는 사고방식('법(法)'이란 부처님 생전의 말씀이며 경전에 기록된 가르침을 의미함)과 관계가 있으며, 회전하는 팔각형 구조에 의해 문자 그대로 '법륜의 회전'을 행할 수 있습니다. 회전시킴으로써 좋은 업(業)을 쌓고, 윤회전생에서 빠져나오며 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어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경장이 회전된 흔적은 없습니다.

경장은 선종이 큰 확장세를 보였던 에도 시대(1603~1868 년)에 지어졌습니다. 난나지 절의 종파는 진언종이며 한 번도 선종(禪宗) 사원이었던 적이 없으나 선종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진언종 사원에서도 선종 사원의 건축 양식에서 받은 영향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